강추위 녹이는 남북 해빙모드… 어깨동무하며 찰칵!

평창올림픽 G-2 평창은 지금

올림픽 사상 첫 '단일팀 결성' 합의
기수는 南 '원윤종' 北 선수는 '미정'
北, 고위급 대표단 파견 등 적극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통해 서서히 완화되는 모양새다. 평창올림픽이 곧 '평화올림픽'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남북은 지난달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성을 합의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가 결정된 후 응원단과 예술단은 물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까지 파견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 단일팀을 확정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우리나라 선수 23명과 북한 선수 12명을 합친 35명으로 꾸려졌다.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이은 역대 3번째이자 올림픽 첫 남북단일팀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만은 않았다. 그러나 올림픽 개막을 앞둔 현재,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모습이다.

◆10년만의 공동입장, 한반도기로 '화합'

남북은 평창에서 공동 입장을 한다. 국제대회 개회식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것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 이래 역대 10번째이자,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이래 11년 만이다.

이번 공동기수 순서는 남남북녀(南男北女) 차례다. 한국은 기수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인 남자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강원도청)을 최종 낙점했다. 원윤종과 함께 한반도기를 들 북한 선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중 한 명이 공동기수로 추천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긴장→친근… 달라진 남북 표정

6일 오전, 방남 5일 만에 첫 공식 일정에 나선 북한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선수들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를 찾아 약 40분간 경기장 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북한 대표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으나, 취재진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친근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단일팀 확정 직후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속속 변화가 감지됐다.

지난 5일 평창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동반 훈련을 치른 피겨 페어 스케이팅의 '남북 대표' 김규은-감강찬(한국) 조와 렴대옥-김주식(북한) 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었다.

김규은이 지난 2일 생일을 맞은 렴대옥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은 것. 김규은과 감강찬은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렴대옥, 김주식에게 줄 계획이다.

네 선수는 연습에서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부딪힐뻔한 상황은 유연하게 넘어갔고, 연습 도중 김주식이 감강찬에게 말을 건네고 웃음을 화답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훈련에서 북한 선수들은 머리 감독의 지시를 따라 한국 선수들과 함께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링크 옆에서는 이날 훈련에 나서지 않은 한국 선수 2명과 북한 선수 1명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다.

머리 감독은 "북한 선수 지도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면서 "코치진은 라커룸에서 남북 선수를 나눠서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북한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선수들이 6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 원윤종이 올림픽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남동생에서 남친으로… 첫 '로코' 도전

스타인터뷰 드라마 '로봇이 아니야' **유승호**

데뷔 19년차에 첫 로맨틱코미디
본인 연기에 점수 준다면 '100점'
책임감에 아쉬운건 '시청률' 뿐

인생의 대부분을 배우로 살았다.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는 아니다. '국민 동생'이었던 그는 어느덧 사랑을 연기할 줄 아는 남자가 됐다. 스스로에게 주는 '로코' 연기 점수는 100점이라고. 거침없고 솔직한 배우 유승호가 아닐 수 없다.

유승호는 지난달 25일 종영한 MBC 수목드라마 '로봇이 아니야'(극본 김선미/연출 정대윤)에서 인간 알러지가 있는 김민규 역으로 분했다.

그에겐 첫 로맨틱 코미디 장르였던 이 작품. 아쉽게도 시청률은 기대만 못했다. 최근 종영 인터뷰를 위해 서울 모처에서 메트로신문과 만난 유승호는 "아름다운 드라마였고, 재미있게 촬영했다. 배우들도 제작진도 정말 좋았다"며 "아쉬운 건 시청률 하나뿐"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1993년 생인 유승호는 지난 2000년 데뷔해 올해로 데뷔 19년 차를 맞았다. 생애 3분의 2 이상을 배우로서 살아온 만큼 출연 작품 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로맨틱 코미디를 지금껏 안 했던 것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다.

유승호는 "다행히 작품 후반부에 들어서야 로맨스가 등장한다. 초반부터 있었다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인간 알러지가 있는 인물이라 혼자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며 "그렇게 혼자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겪어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극중 김민규는 사랑을 해보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러다 로봇 아지3을 연기하는 조지아(채수빈 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채수빈과 달달하면서도 유쾌한 로맨스를 그렸던 그는 "알콩달콩한 신들이 무섭지 않았다. 인간 유승호도 김민규의 감정 변화를 함께 느꼈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애정신이)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 제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승호는 "'로봇이 아니야'를 하길 참 잘했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후한 점수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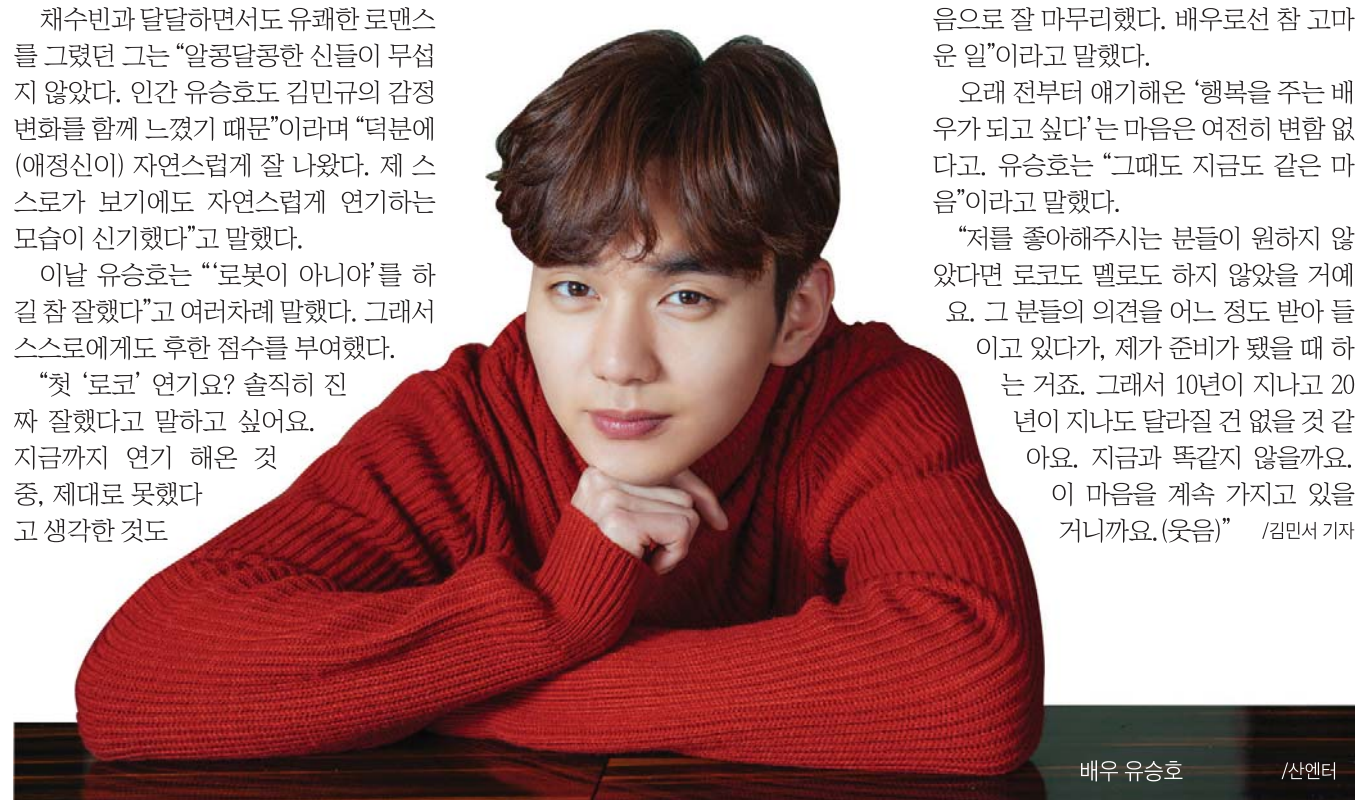
"첫 '로코' 연기요? 솔직히 진짜 잘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연기 해온 것 중,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럴 때면 창피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번엔 스스로도 정말 행복했고, 모니터링을 할 때도 이것보다 민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너무 잘 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시청률을 제외하면 완벽하고 행복했죠. 예쁜 드라마에요. 그래서 제 연기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 줄래요. 이렇게 말하면 욕 먹을 텐데. 하하."

배우로서 살아온 삶이 그리 쉽지 만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가 도전 의식과 책임감의 사이에서 늘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처음 저조한 시청률이 나왔을 땐 감독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유승호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 시청률이 100% 제 책임은 아니지만, 제 책임이 완전히 아닌 것도 아니"라면서 "현장 분위기가 좋아서 시간이 지날 수록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잘 마무리했다. 배우로선 참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래 전부터 얘기해온 '행복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유승호는 "그때도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로코도 멜로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 들이고 있다가, 제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과 똑같지 않을까요.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웃음)" /김민서 기자



배우 유승호 /산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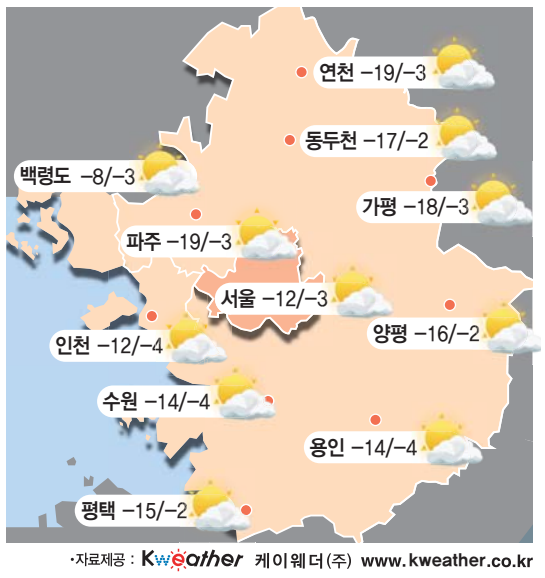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31 | 해짐 / 18:02

2월 7일 음력 : 12월 22일

수도권 날씨 -12~-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15년 만에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서 무대를 펼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140여 명 규모의 삼지연관현악단은 삼지연악단, 모란봉악단 등 6~7개의 북한 악단과 예술단의 단원들로 구성된 연합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쇼트트랙의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을 비롯한 러시아 선수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에 불복,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문제를 제기했다.

▲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대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지적된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보건 위생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재차 개선을 약속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입장권 판매율이 77%를 넘어선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입장권 '완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 **제라드 피케**(FC바르셀로나)가 관중들을 자극할 수 있는 골세리머니 때문에 자칫 징계를 받을 위기에 내몰렸다.

▲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8개국이 참가하는 육상 월드컵을 신설했다.